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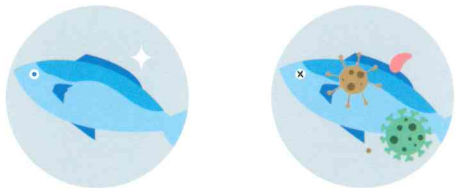
비브리오균의 특징



바닷물의 온도가 18~20℃로 상승하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며 염분을 좋아한다.



저온(5℃ 이하)에서는 균 증식이 억제되고, 고온(60℃ 이상)에서는 증식이 약화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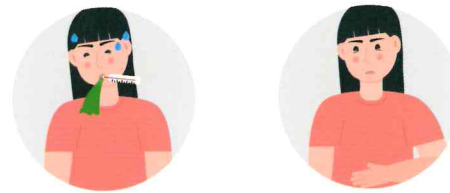


또한 활어의 근육은 균이 없는 무균상태로 생체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어, 비브리오균이 근육 안으로 파고들어 가지 못해 활어의 아가미, 껍질 등에 주로 묻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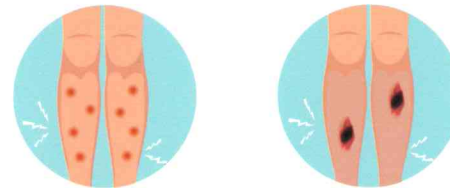
비브리오패혈증의 증상



약 12~72시간에 이르는 잠복기를 거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,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걸릴 확률이 낮고 비브리오균이 체내에 들어와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.



만성 간 질환자, 알콜중독자, 면역 저하 환자, 위장 질환자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지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열과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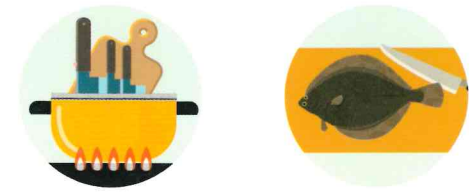


심할 경우 다리에 통증과 함께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염증 세포에 의해 피부 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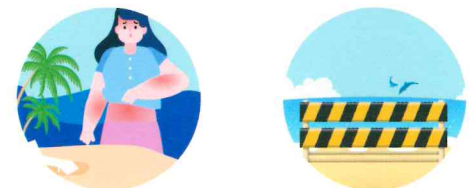
비브리오패혈증의 예방법



어패류는 구입 즉시 냉장보관 하고 조리할 때는 수돗물에 충분히 잘 씻어 염분을 제거하며 속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 조리(85℃, 1분 이상)해 섭취한다.



활어의 아가미, 껍질 등에 묻어 있는 비브리오균이 칼, 도마, 행주 등을 통해 생선회 살점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세척, 열탕 처리한 후 사용한다.



여름철 해변에 갈 때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가 났을 때는 깨끗한 물로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는다.